

# 쉐보레 아베오 시승기

역동적 디자인과 안정적 주행 매력적



한국GM이 소형차 ‘아베오’를 공개했다. GM대우였던 회사명을 바꾸고 브랜드 이름도 ‘쉐보레’를 쓰겠다고 선언한 후 다목적차량(MPV) ‘올란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신차다.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국제모터쇼에 모습을 드러낸 아베오는 국내 출시날짜가 결정되기도 전에 인터넷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베오는 두 모델 가운데 3월 중순 해치백부터 선보인다. 한국GM은 해치백 불모지로 불리는 국내 자동차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세단의 출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이크 아카몬 한국GM 대표는 아베오를 ‘작은 거인’으로 부르며 합리적 가격과 차별화

된 디자인 등의 강점을 내세운 뒤 “경쟁사와 비교해 달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모터사이클 닮은 외관과 알찬 실내공간

모터사이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아베오의 전체 외관은 작지만 단단해 보였다. 국산차에 흔하지 않은 돌출된 윗형의 헤드램프가 신선한 느낌이고 소형차에 처음 적용됐다는 17인치 대형 알루미늄휠도 안정감을 주는 데 한 몫하는 듯 했다.

앞좌석에 앉으니 걸보기보다 공간이 여유로웠다. 하지만 뒷좌석은 ‘성인 남성이 앉아 장거리를 가기엔 다소 좁



- 1 쉐보레 아베오의 준중형차급의 정속하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 2 모터사이클을 본 뜬 형태인 계기판에서 RPM은 아날로그식이고 속도계는 디지털식인 것이 이채롭다.
- 3 조수석 앞 상단 수납공간에는 스마트폰이나 MP3를 연결할 수 있는 USB포트가 달려 있다.
- 4 통상 사이드 브레이크 뒤에 있는 콘솔박스가 없는 대신 컵홀더가 3개나 있다.

달린 수납공간은 1.5L 음료수병을 세워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 주행 · 정속성 OK, 순간 가속력은 끝세...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편도 68.4km를 해치 백 모델로 달려 봤다. 시동을 걸자 카랑카랑한 배기음이 약간 거슬렸다. 순간적으로 디젤차인지 가솔린차인지 헷갈렸다. 그러나 주행을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조용해졌다. 시속 80km/h에서도 실내는 중형차 못지않게 정속했다. 운전자를 감싸는 버킷형 좌석이 코너를 돌 때 쓸림현상을 줄여 주는 것도 만족스러웠다.

기어 변속 시 튀는 느낌이 없어 6단 자동변속기가 꽤나 고급 사양임을 짐작하게 했다. 전체적으로 주행이 부드러웠지만 폭발적인 가속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힘껏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한 박자쯤 늦게 차가 튀어나갔다. '실용적인 도심형 차량'을 콘셉트로 개발했다는 한국GM의 설명이 와 닿았다. 그다지 출지 않은 날씨였지만 옆유리와 뒷유리에 하얗게 성애가 내려앉았다.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갈 때에는 좀 더 치밀한 조립이 바람직해 보였다.

아베오는 차량 충돌 시 가속페달이 운전자 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페달 분리 시스템'과 급제동 시 자동으로 뒷차에 경고등을 점등하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을 달았다. 신호 대기 중이거나 오랫동안 서 있으면 '자동 중립 기어 시스템'이 작동해 엔진과 변속기의 부하를 줄여준다. 연비는 5도어 해치백 수동변속 차량이 17.3km/L, 자동변속형은 14.8km/L다.

가격은 1.6L 수동이 1천130만~1천409만 원이고 자동변속기로 바꾸면 각각 130만 원이 추가된다. 경쟁 차종인 현대차의 엑센트 1.4L(1천149만~1천380만 원)와 비슷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점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사진제공\_ 한국GM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기판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 역시 모터사이클을 본뜬 형태인 계기판에서 RPM은 아날로그식이고 속도계는 디지털식인 것도 이채로웠다.

수납공간은 다양한 장소에 알차게 마련됐다. 통상 사이드 브레이크 뒤에 있는 콘솔박스가 없는 대신 컵홀더가 3개나 있고 중앙 송풍구 좌우에 '커플 포켓'으로 이름 붙여진 수납공간은 수첩이나 휴지 등을 놓기에 적당하다. 조수석 앞에 있는 두 개의 수납공간 중 상단에는 스마트폰이나 MP3를 연결할 수 있는 USB포트가 달려 있어 충전과 음악 감상, 핸즈프리 통화를 편히 할 수 있다. 문에